

# '25번 새 주인' 박찬호

## “평생 존경의 이름 기억”

“10년 후 감독과 선수로 우승 하지는 마지막 약속 지키겠다”



이범호에게 25번을 물려받은 박찬호(KIA)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현역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이범호는 지난 13일 은퇴 행사 때 박찬

호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등번호를 물려줬다. 선배는 후배의 성공을 응원하고 후배는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의미

가 담겨 있다.

“주전 3루수는 박찬호라고 생각한다. 나간다면 3루수에게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한다. 찬호가 고맙게도 남은 시즌 내 유니폼을 입고 뛰어주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좋아하는 후배에게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다. 찬호도 ‘좋은 변화여서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구단에서도 좋은 선수에게 주고 가도록 말씀을 하셨다”. 이범호의 말이다.

박찬호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배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멋지고 뜻깊은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영광스러웠다”고 말했다. “제가 ‘이범호’라는 석자는 평생 존경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박찬호는 “지금까지 해주셨던 크고 작은 조언과 다그침 그리고 짧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을 가슴 속에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박찬호는 “25번”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선배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죽어라 해서 부끄럽지 않은 ‘25번’ 박찬호가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10년 후 감독과 선수로 만나서 우승하지는 약속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정말 존경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 강정호, 교체 출전해 1타수 1안타...7월 타율 0.333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에 0-7 대패...4연패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32)가 교체 출전해 안타를 때려냈다.

강정호는 16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스 카디널스와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기회는 경기가 세인트루이스로 크게 기운 후반에야 왔다. 강정호는 0-7로 끌려가던 7회 2사 1루에서 유격수

로 투입됐다.

8회초에는 선두타자로 타석에 섰다.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 선발 마일스 마이필라스의 3구째 93마일(약 149.7km)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터뜨렸다. 좌익수 타일러 오닐이 타구를 빠뜨린 사이 2루까지 진루했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은 올리지 못했다.

1타수 1안타를 기록한 강정호는 3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면서 시즌 타율을 0.181에서 0.187로 끌어 올렸다.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고전했지만 7월 이후 타율 0.333(24타수 8안타)를 기록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피츠버그는 0-7로 대패를 당했다. 4연패에 빠지며 시즌 성적은 44승49패가 됐다.

세인트루이스는 47승45패를 거뒀다. 마이필라스는 9이닝을 홀로 책임지며 8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수확했다.

## LPGA 마라톤클래식 우승 김세영, 세계 랭킹 11위

세계랭킹 1위 박성현 · 2위 고진영 변함없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75만달러)에서 우승한 김세영(26)이 세계랭킹 11위로 도약했다.

15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12위에서 1계단 오른 1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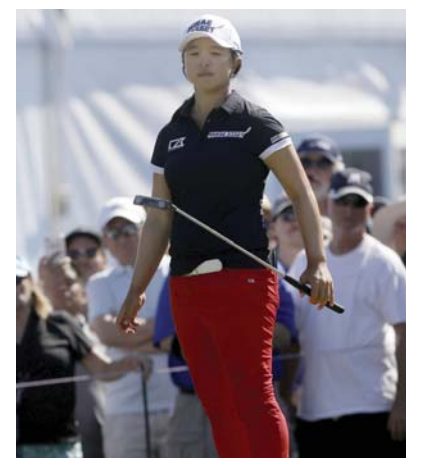
앞서김세영은 이날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나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장(파 71)에서 끝난 대회에서 최종

합계 22언더파 262타로 시즌 2승째이자 투어 통산 9승을 달성했다.

지난주 11위 유소연(29)이 12위로 내려왔다.

세계랭킹 1위는 박성현(26), 2위는 고진영(24)으로 변함없었다. 호주동포 이민지는 마라톤 클래식 준우승자 레시 톰슨(미국)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5위 박인비(31), 7위는 이정은(23)이다.



## ‘핫식스’ 골프 이정은, MBN 여성스포츠대상 6월 MVP

올시즌 LPGA 데뷔...지난달 US오픈 깜짝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핫식스’ 이정은(23·대방건설)이 2019 MBN 여성스포츠대

상 6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지난해 LPGA 투어 웰리파인 시리즈를 수석으로 통과한 이정은은 올 시즌 LPGA 투어에 데뷔, 지난달 최고 권위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을 제패하며 세계 골프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숏하이트 LPGA 클래식에서도 준우승하며 기세를 떨쳤다.

이정은은 “MBN 여성스포츠대상 6월 MVP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면서 “루키 시즌인 올해 미국 무대에서 이정은이란 이름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성스포츠대상 심사위원장인 임신

자 한국여성스포츠회장은 “데뷔 첫해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일군 이정은의 여성스포츠대상 월간 MVP 수상을 축하한다”며 “미국 LPGA 무대에서 더욱 성숙한 플레이로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2년 제정된 MBN 여성스포츠대상은 여성 스포츠 활성화와 여성 스포츠인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매월 국내 여성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을 월간 MVP로 선정하며, 1년 동안 한국 여성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선수들과 함께 12월 연말 시상식을 통해 대상 등 8개 부문을 시상한다.

## 맨유 데헤아, 세계 최고 골키퍼 대우...주급 5억2000만원

스페인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29)가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주급 35만파운드(약 5억2000만원)에 재계약할 전망이다.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은 16일(한국시간) “데 헤아가 맨유와 주급 35만파운드에 5년간 재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 헤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골키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데 헤아는 2011년 여름 이적 시장

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서 맨유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당시 몸값 1800만파운드(약 266억 원)는 지안루이지 부폰이 라치오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할 당시 기록한 3200만파운드(약 481억원)에 이은 골키퍼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후 맨유의 주전 수문장으로 거듭난 그는 컵 대회를 포함해 362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이적료가 끊이지 않았다. 고

향팀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프랑스 리그1 파리생제르망(PSG)까지 구애를 했다. 이번 재계약으로 이적설은 잠잠해질 전망이다.

그는 호주에서 열리는 맨유의 프리 시즌 투어 명단에 들어있다. 올레 군나르 솔샤르 맨유 감독은 “데헤아가 구단과 재계약을 놓고 협상을 해왔다.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 ■ 실이 있는

# 지리산 돌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돌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오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